

‘AI 춘추전국시대’ 속 모델 선택법... “필요한 기능 따라 써야”

챗GPT 복잡한 작문·철학적 논의
클로드 장문 문맥·코딩 능력 ‘강점’
코파일럿 정보 검색·문서 작업
제미니 구글 연동·멀티모달 분석

‘기술 빅뱅’ 챗GPT의 출연 이후 쏟아진 인공지능(AI) 모델, 어떤 모델을 써야할까. 답은 ‘내가 필요로 하는 기능에 따라 다르다’이다.

27일 <메트로경제신문>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AI 모델 챗GPT, 클로드, 코파일럿, 제미니, 퍼플렉시티, 딥시크, 그록3과 한국의 대표 AI 모델 하이퍼클로바X를 소개하고 활용법을 추천해본다.

◆**챗GPT(ChatGPT)**
오픈AI가 개발한 대표적인 생성형 AI로, 탁월한 언어 능력과 창의성으로 복잡한 글쓰기와 철학적 논의에 강하다.

pdf·hwp 파일 등 다양한 포맷을 읽을 수 있으나, 속도가 다소 느리고 교차 검증이 필요한 허점도 있다.

▲추천 활용 분야 : 콘텐츠 기획, 기



ChatGPT에 의해 생성된 ‘AI 모델 선택에 고민하고 있는 소비자’ 이미지.

획서 작성, 각종 문서파일 요약

◆**클로드(Claude)**
미국 앤트로픽이 개발한 AI로, 장문 문맥 유지력과 코딩 능력이 뛰어나 GP T를 능가한다는 평가도 있다. 다만 한국어 맥락 이해가 부족하고, 창의적 글쓰기나 의견 제시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 한계가 있다.

▲추천 활용 분야 : 회의록 등 장문 요약, 기획서 정리, 공식적 문서 작성

퍼플렉시티 빠르고 정확한 요약
딥시크 수학·코딩 등 기술 뛰어나
그록3 X 연동... 밈·유머에 강해
하이퍼클로바X 韓 기반 응답 특출

◆**코파일럿(Copilot)**

마이크로소프트가 GPT와 연동해 오피스 제품에 통합한 AI로, 최신 정보 검색과 문서 작업에 특화돼 있다. 정확하

고 빠른 응답이 가능하지만, 무료버전은 기능이 제한적이고 프롬프트 조율에 신경 써야 한다.

▲추천 활용 분야 : 보고서 초안, 매일 요약 및 회신, 트렌드 조사

◆**제미니(Gemini)**
구글이 개발한 AI로, G메일·드라이브 등 자사 서비스와의 연동성과 멀티모달 분석 능력이 강점이다. 검색 기반 응답이 정확하지만 한국어 감성과 창의력 면에서 타 모델 대비 부족한 점이 있다.

▲추천 활용 분야 : 문서 분석, 실시간 트렌드 조사, 구글 서비스 기반 작업

◆**퍼플렉시티(Perplexity)**
검색형 AI로, GPT 기반 응답에 출처를 명시해 빠르고 정확한 정보 요약이 가능하다. 서사적 글쓰기나 통찰에는 약하며 반복적 답변이 많고 깊이 있는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추천 활용 분야 : 리서치 초안, 참고자료 정리, 기사 개요 구성

◆**딥시크(DeepSeek)**
중국발 오픈소스 AI로, 수학·코딩 등 기술 분야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며 빠

르게 성장 중이다. 창의적 글쓰기와 한국어 이해는 미흡하고, 긴 문서 분석이나 감성 응답엔 약점을 보인다.

▲추천 활용 분야 : 프로그래밍 실습, 수학 풀이, 기술 리포트 정리

◆**그록3(Grok 3)**
일론 머스크의 xAI가 개발한 AI로, X(구 트위터)와 연동돼 인터넷 밈과 유머에 강하다. 정확성과 논리성은 부족하고 한국어 성능이 낮으며, 비윤리적 콘텐츠 생성 가능성도 있다.

▲추천 활용 분야 : 소셜 콘텐츠 기획, 유머 기반 실형, 실시간 이슈 반응 분석

◆**하이퍼클로바X(HyperCLOVA X)**
네이버가 개발한 한국어 특화 AI로, 한국어 문맥 이해와 국내 문화 기반 응답에 강점을 보인다. 고차원적 사고나 창작, 긴 문서 요약에선 한계를 드러내며 글로벌 모델 대비 정밀도가 낮다.

▲추천 활용 분야 : 한국어 요약, 지역 기반 정보 탐색, 고객 응대 시나리오 작성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SKT “ESG에 AI 적용... 지속가능 성장 추구”

신비전 ‘두 더 굿 에이아이’ 공개
AI로 통신·기술 경쟁력 높이고
신뢰·안전성 확보, 사회 기여 전략

SK텔레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새로운 비전 ‘DO THE GOOD AI(두 더 굿 에이아이)’를 공개했다.

SK텔레콤은 27일, ESG 전 영역에 AI를 적용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며, ‘DO AI’, ‘T.H.E. AI’, ‘GOOD AI’로 구성된 ESG 전략을 발표했다. ‘DO AI’는 AI로 통신과 기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T.H.E. AI(By Telco, For H

umanity, With Ethics AI)’는 AI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GOOD AI’는 AI를 통해 사회에 긍정적 기여를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SKT는 환경 부문에서 AI 기반 네트워크 설계와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넷제로(탄소 순배출량 0)’를 실현하고 있다. AI를 활용해 고객 품질 변화 예측, 최적 위치에 장비 배치, 트래픽 부하에 따른 전력 소비 조절 등으로 전기 사용량을 절감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 분리배출 가이드 제공 등 순환경제 실현 방안도 준비 중이다.

사회 부문에서는 AI를 기반으로 보이스피싱 차단,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

스 ‘케어비어’, AI 안부 확인 서비스 등을 통해 약 4만5000명에게 사회안전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자원봉사단 운영, AI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이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지난해 선보인 AI 거버넌스 ‘T.H.E. AI’를 고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AI 피라미드 전략’의 실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SKT는 국내 통신사 최초로 AI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IEC 42001’을 취득했으며, 글로벌 사업자 및 기관들과 함께 AI 거버넌스 도입 및 활용 방안도 모색 중이다.

/김서현 기자

KT, ‘지니 TV’ 마케팅에 AI 기술 도입

오리지널 콘텐츠 ‘신병 3’ 홍보영상

KT는 27일, 오는 4월 7일 첫 방송되는 지니 TV 오리지널 콘텐츠 ‘신병 3’의 마케팅에 AI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KT는 ‘신병 3’ 홍보 영상 일부를 AI 기술만으로 제작했다. 기존 시리즈의 주요 장면을 압축한 몰아보기 영상과 신작 하이라이트 숏폼 영상이 AI를 통해 자동 편집됐으며, 온라인과 SNS 채널에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KT는 이번 제작 방식으로 영상 제작 시간과 비용을 약 90% 이상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KT는 자회사인 KT ENA 및 KT 스튜디오지니의 유튜브 콘텐츠에도 AI 기반 편집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의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한 편집, 영화·해외 시리즈 숏폼 자동 생성 등이 포함된다.

AI 편집 시스템은 콘텐츠의 스토리 라인을 기반으로 클립형, 인물형, 행동



KT가 4월 7일 첫 방송되는 지니 TV 오리지널 ‘신병 3’의 마케팅에 AI 기술을 접목한다. KT 직원이 ‘신병 3’를 소개하고 있다. /KT

형 등 다양한 형식의 숏폼 제작이 가능하다. 이 가운데 ‘행동형’은 특정 동작 중심으로, ‘인물형’은 특정 인물 시점에 맞춰 편집된다. KT는 세로형 숏폼에 특화된 자체 기술 ‘포커스뷰’를 적용해 주요 피사체를 자동 식별하는 기능도 도입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KT가 신설한 AI 미디어 콘텐츠 조직 ‘AI 스튜디오 랩’이 주도하고 있으며 KT는 기술 지원을, 미디어 계열사는 기획·제작·유통을 맡는다.

/김서현 기자

시프트업, 직원 평균연봉 ‘1억3200만원’

성과 따른 보상 통해 직원 역량 발휘

국내 주요 게임업체 기업들의 직원 평균 연봉을 분석한 결과 시프트업이 1억3200만원으로 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어 크래프톤 1억900만원, 엔씨소프트 1억800만원대의 연봉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프트업은 지난해 319명의 직원들에게 1인 평균 1억320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평균 근속년수는 3.1년이다.

시프트업은 성과에 따른 보상을 통해 임직원들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는 김형태 시프트업 대표의 인재 중심 경영 철학이기도 하다. 김 대표는 올해 초 신년 행사에서 “회사 성장에 기여한 구성원들에게는 확실한 보상을 통해 회사 성과를 나누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3년엔 ‘니케: 승리의 여신’ 출시 이후 개발팀은 물론 전 직원에게 100억 원 규모의 보상을 3차례에 나눠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창립 10주년을 맞아 300여명에게 1000만원이 든 신용카드도 지급한 바 있다.

또 ‘시프트업 라이즈업: The Origin’에서는 인재 격려의 일환으로 전 직원에게 500만원의 상여금과 플레이스테이션5 프로(PS5 프로)를 지급했다. 당시 직원 수는 약 320명으로, 앞서 상여금과 선물의 총액은 약 2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시프트업은 올해 니케의 중국 시장 진출과 스텔라 블레이드의 PC 버전 출시를 통해 해외 시장 확장에 나선다. 중국 시장의 경우 지난 1월 9일 사전 예약을 시작한 이후 2월 20일 기준 사전 예약자가 300만명을 넘어섰으며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1월 6일 시프트업은 전 직원들에게 플레이스테이션 5프로를 지급했다. /시프트업

2위는 크래프톤이다. 총 1903명의 직원에게 1인 평균 1억900만원을 지급했고 평균 2.9년을 근속했다. 지난해보다 직원 수가 324명 늘었고 평균 급여액은 1100만원 증가했다. 크래프톤은 지난해 펍지의 대항행에 채용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의 임금을 늘리기도 했다.

3위는 엔씨소프트다. 엔씨는 1억800만원으로 연봉은 전년보다 100만원 증가했지만 직원은 회사 내부 구조 조정으로 1200명 가량이 줄었다.

/최빛나 기자 vitna@

슈퍼브에이아이 “AI로 관중 혼잡도 분석”

수원 KT 위즈파크에 시스템 구축

비전 AI 올인원 솔루션 기업 슈퍼브에이아이는 KT위즈의 홈구장인 수원 KT 위즈파크에 AI(인공지능) 혼잡도 분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KT의 신규 AI 브랜드 출시에 맞춰 수원 KT 위즈파크를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로 새로 단장하는 ‘KT AI 스타디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국내 프로 스포츠 경기장에 AI 혼잡도 분석 시스템이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솔루션은 슈퍼브에이아

이의 비전 AI 기술을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적용한 사례로, 2025 KBO 리그 시즌 개막에 맞춰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슈퍼브에이아이가 개발한 AI 혼잡도 분석 시스템은 야구 경기장 내 설치된 50여대의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구역별 관중 밀집도를 파악하고, 이를 전광판과 관리자 대시보드에 직관적으로 표시한다. 관중 수에 따라 구역별 혼잡도를 초록색(여유), 노란색(보통), 빨간색(혼잡)으로 시각화해 안전한 관람 환경을 조성한다.

/김현정 기자 hjk1@